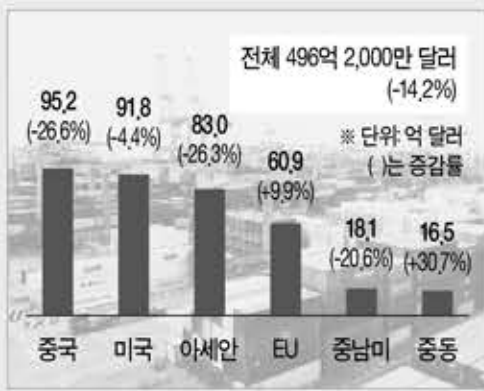


한국 무역수지 14개월 연속 적자



▲ 4월 6대 주요 지역별 수출액 및 증감률. 그래프=뉴스1

한국의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는 1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14개월 연속 적자는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25년 만이다.

1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이같은 지표가 담긴 '4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1월 125억 1,700만 달러, 2월 52억 9,500만 달러, 3월 46억 3,200만 달러에 비해 무역수지 적자폭이 둔화됐지만, 이는 주로 에너지 수입액이 줄어든데 따른 영향으로 구조적 반전은 아직이란 평가이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4.2% 감소해 49.6억 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달에도 반도체 수출이 64억 8,000만 달러를 기록, 지난해 대비 41.0% 급감한 게 전체 수출실적에 악재로 작용했다.

20년이 넘게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던 중국에 대한 4월 수출액은 95억 2,000만 달러로 미국(91억 8,000만 달러)이나 아세안(83억 달러)과 큰 격차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쇠퇴했다.

전년 대비 대아세안 지역 수출도 26.3% 축소됐다. 베트남이 있는 아세안은 중국과 함께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지역인데, 세계 반도체 경기 침체가 두 지역 수출지표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4월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9.9% 늘어 60억 9,000만 달러, 중동으로의 수출은 1년 새 30.7% 늘어난 16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저출산에 군대도 '좌우로 정렬'

강원도 양양에 주둔하며 동해안 전역을 방어하던 육군 8군단이 올 6월말 해체된다.

1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8군단은 이날부로 임무 해제를 하고 각종 경계 임무와 작전 기능을 3군단으로 넘긴다. 이로써 1987년 4월 창설돼 동해중용부대라는 별칭으로 불리던 8군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군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상비병력을 2017년 61만 8,000명에서 2022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육군 군단은 8개에서 6개로, 사단은 39개에서 33개로 축소하는 부대구조 개편을 추진해왔다.

20세 남성인구가 2021년 29만명, 2035년 23만명, 2040년 13만명 순으로 급감하는 인구 절벽이 도래한다는 추계가 고려됐다. 병력의 공백은 첨단 과학기술로 메운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2·20·26·30사단이 해체됐으며 작년 말에는 '이기자 부대'로 널리 알려진 강원도 화천 27사단이 해체돼 지역민들의 아쉬움을 샀다.



▲ 육군 제8군단이 올 6월 해체한다. 8군단 부대마크 사진=위키백과

일각에선 8군단이 관할하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해체 작업을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8군단 예하 22사단은 강원도의 험준한 산악 지형과 긴 해안을 함께 경계하는 부대로 전군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와 GOP 등 전방 경계와 해안 경계를 동시에 맡고 있다. 22사단의 책임 구역은 전방 육상 30km, 해안 70km 등 100km에 달한다. 22사단을 흡수하게 되는 3군단본부의 지휘 책임은 더 막중해질 수밖에 없다.

전국 아파트 가격 하락폭 감소

주간 아파트 가격이 세종시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전 지역에서 하락폭이 줄어드는 등 계속해서 시장의 활기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4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이날, 5월 첫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 결과, 매매가격은 0.09% 하락, 전세가격은 0.13%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주(-0.11%)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9%→-0.07%), 서울(-0.07%→-0.05%) 및 지방(-0.13%→-0.11%) 모두 하락폭 축소됐고 5대광역시(-0.18%→-0.15%), 8개도(-0.10%→-0.09%), 세종(0.27%→0.23%)역시 하락폭이 줄었다.

시도별로는 세종(0.23%)은 상승, 대구(-0.25%), 제주(-0.16%), 울산(-0.16%), 부산(-0.14%), 전북(-0.13%), 광주(-0.13%), 경남(-0.10%), 전남

(-0.09%), 경기(-0.09%)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직전주 대비 상승 지역은 19개에서 21개로 늘었고 포함 지역 역시 7개에서 8개로 증가, 하락 지역은 150개에서 147개로 감소했다.

전세가격 역시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18%)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19%→-0.13%), 서울(-0.13%→-0.11%) 및 지방(-0.18%→-0.13%) 모두 하락폭이 축소됐고 5대광역시(-0.24%→-0.17%), 8개도(-0.13%→-0.11%), 세종(0.10%→0.07%) 역시 하락폭이 줄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도, 매수 희망가격 격차로 하락세가 지속 중이나 일부 지역의 선호단지 위주로 실거래 및 매물 가격이 완만한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지역별로 다른 양상 보이며 전체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Kyung Sook Yu, D.D.S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Free
임플란트 상담

크라운 (PFM)
\$500

잇몸치료
\$200 부터

틀니
\$1500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Imperial Hwy

S. Beach

● 유경숙 치과

에당식당